

법회안내

해달스님(각하사 주지) 매월 셋째 일요일 오전 10시30분 동명사 일요법회. 매월 음력 1일 오전 10시 초하루 법회.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불교문화센터(지장경) 강의. (0347)64-6078

법산스님(동화사 상임포교법사)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대구 거사림정법회 중도선원 선우회 중도선법(위빠사나)지도. 매월 셋째 넷째 수요일 오후 7시 <금강경> 대강좌. 매월 첫째주 월요일 오후 7시 마하회 법회. 매월 음력 1일 오전 11시 동화사 법회. (053)983-0075

적경스님(봉인사 주지) 매월 둘째 일요일 오전 10시 제73사단 호국총장사 법회. 매월 음력 1일~3일 신중기도법회. 매월 음력 16일~18일 지장기도법회. (0346)574-5585

백암스님(금강정사 주지) 매월 첫째 일요일 오전 10시 포살법회. 매월 둘째 일요일 오전 10시 일요법회. 매월 음력 1일 오전 10시 학업성취기도법회.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참선수행 법회. (02)893-2700

지명스님(천명사 주지) 매월 음력 7일 오전 10시 칠성재일 기도법회. 매월 음력 18일 오전 10시 지장재일 기도법회. 매월 음력 24일 오전 10시 관음재일 기도법회. (062)234-6203

법회안내를 원하는 사찰·단체는 법사 사진과 함께 보내 주시면 성실히 게재하겠습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98

신행수첩

젊은 노인들 오세요 불교신행원 무료 점심공양

생명의 힘을 실감하며 보시행을 펼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다. 불교신행연구원(원장 김현준)이 11일부터 장충단공원에서 결식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점심공양 봉사가 바로 그것. 불교신행연구원은 한달에 두번, 하루 약 2시간동안 노인들을 안내하고 공양후 청소 및 정리정돈을 할 수 있는 자원봉사의 손길을 기다린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월 20회 실시되는 무료급식은 노인들에게 공양과 더불어 온정을 전할 수 있는 훈훈한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02)587-6613

북녘어린이에 자비를... 정토포교원 '사랑의 바자회'

저렴한 가격에 의류 및 생활용품 장만하고 북녘의 굶주린 어린이도 도울 수 있

는 일석이조의 기회가 마련된다. 정토포교원(원장 법륜스님) 승만회(회장 김용수)는 14일 낮 12시부터 서울고대 정문 맞은편 서일빌딩 주차장에서 북녘 어린이 돕기 '사랑의 바자회'를 연다. 옷 양말 가방 신발 액세서리 등을 판매해 얻어질 바자회의 수익금은 우리민족 서로돕기 불교운동 본부에 기탁될 예정이다. 2월25일 이미 1차 바자회를 열었던 승만회는 북녘 어린이의 모습이 담긴 사진 전시와 나진 선봉 어린이 결연 회원 모집도 같이 실시한다. (02)3672-5373

봉암사의 자연·생물 탐사

맑고향기 사찰생태기행

맑고향기동계(회주 법정)는 22일 참선수행 도량인 경북 문경 봉암사로 제8회 사찰환경 생태기행을 떠난다. 봉암사는 현재 사찰 인근의 폐광을 개발, 위락단지로 조성하려는 기온군 및 일부 주민들의 지역 개발 논리와 자연 및

수행 환경의 훼손은 막아야 한다는 사찰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곳이다. 산철 결재 기간 중에 방문케 될 봉암사로의 사찰환경 생태기행의 신청접수는 선착순 40명이며, 가족 동행자는 우선 접수한다. (02)741-4696~7

불심예심 남도기행

따뜻한 봄날 움트는 새싹, 불심(佛心)을 찾아 떠나는 답사기행이 불자들을 기다린다.

부산불교교육원(원장 성재도)는 경북 예천 용문 개심사터를 쓸쓸히 지키고 있는 보물 제53호 오층석탑을 둘러보고, 풍문동 석불입상, 초간정, 용문사, 청룡사를 거치는 제8차 우리문화기행을 떠난다. 다양하고 세련된 꽃살창을 자랑하는 용문사 대장전의 운장대는 눈여겨볼만하다. 15일 오전 7시 부산불교교육원 앞에서 출발한다. (051)466-4080

터사랑(전숙희)은 남도기행을 준비했다. 서산대사와 초의선사의 자취가 어린 해남 두륜산 대둔사에서 새벽을 연후 남한강의 최남단 팔공 갈매마을에서 해돋이를 볼 계획. 달마산 미항사 부도발, 단산초당, 시인 김영랑의 생가도 방문하며 마지막으로 월출산이 아름답게 바라보이는 월남사터를 돌아본다. (02)725-1284

"금강경서 삶의 지혜 찾자"

바른법연구원 '성자와...' 독후감 모집

힘들고 어려운 시대, 고통받는 중생들에게 부처님 말씀은 그 무엇보다 애정이 가득한 희망의 메시지다. 바른법연구원(원장 김원수)은 경전읽기를 통해서 현재의 난관을 헤쳐나가는 지혜를 터득하고, 불서읽기의 주변확대를 꾀하기 위해 '성자와 범부가 함께 읽는 금강경' 독서감상문'을 모집한다. **故** 운율순교수가 올해 초 펴낸 <성자와 범부가 함께 읽는 금강경>은 어렵다고만 생각되는 경전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고, 초등학교생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읽고 재미있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책. "성스러운 사람이나 보통사람들이나 모두 <금강경>을 항상 지녀 독송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가르침을 널리 설하는 공덕은 세상의 그 어떤 공덕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부처님의 말씀을 명심하면서 집착을 버리고 모든 것이 허망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 범부로 부터 출발해 성인에 이르는 깨달음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인연을 맺어 보자. **초·중등부, 대학부, 일반부**로 나눠 실시되는 이번 독서감상문은 200자 원고지 10매 내외로 작성해 4월 15일까지 바른



◇성자와 범부가 함께 읽는 금강경>은 성자와 범부의 차별을 떠나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길을 제시하고 있다.

법 연구원으로 보내면 된다. 당선작은 부처님오신날을 전후로 발표한다. **보낼곳:** 우편번호(12-03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889 용화사 바른법연구원 '독서감상문 응모'라고 명기, 주소 및 연락처 기재 바람) (02)337-1636 **Fax:** (02)324-3866 **인터넷:** www.interpia.net/~ommani/diamond.html

게시판

- 인사: △불학연구소 사무국장 심원, △부주지 대안, △기획국장 선문, △포교국장 선홍, △불교신문사 △노 동 조합 위원장 정용기
- 강좌: △원각각=조계사 경전연구강원에서는 <원각경> 강의를 개설했다. 15일부터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송찬우교수(중암승가대)

- 모집: △승가대학 학인=승계가 강의한다. (02)720-1390 △동화구연교실=구로종합사회복지관(관장 설용)은 4월1일부터 매주 수요일 동화구연교실을 연다. 저소득층은 무료. (02)852-0525 △근본불교교과=자비마을 부설 근본불교학교 불학기 강좌가 21부터 시작된다. 불자들을 대상으로 근본불교 교리교실, 근본불교 수행교실, 경전교실 등을 강의한다. (051)505-8396

- 모집: △승가대학(학장 선곡)은 사미과·사집과·금강경 편입반 학인을 모집한다. 서류전형과 면접으로 선발하며 개강은 16일. (0595)83-1906 △키운셀러 대학=불교사회복지회 부설 대구 지부의 전화(회장 고정순)는 98년도 카운셀러대학 상담교육생을 모집한다. 23일부터 3개월간 실시. (053)951-3340-1 △유치원 시간제교사=부루나 어린이집(원장 선일)은 유아교육, 아동학 전공의 시간제 교사를 모집. 오전 8시~오후 2시까지

- 모집: △승가대학(학장 선곡)은 사미과·사집과·금강경 편입반 학인을 모집한다. 서류전형과 면접으로 선발하며 개강은 16일. (0595)83-1906 △키운셀러 대학=불교사회복지회 부설 대구 지부의 전화(회장 고정순)는 98년도 카운셀러대학 상담교육생을 모집한다. 23일부터 3개월간 실시. (053)951-3340-1 △유치원 시간제교사=부루나 어린이집(원장 선일)은 유아교육, 아동학 전공의 시간제 교사를 모집. 오전 8시~오후 2시까지

- 모집: △승가대학(학장 선곡)은 사미과·사집과·금강경 편입반 학인을 모집한다. 서류전형과 면접으로 선발하며 개강은 16일. (0595)83-1906 △키운셀러 대학=불교사회복지회 부설 대구 지부의 전화(회장 고정순)는 98년도 카운셀러대학 상담교육생을 모집한다. 23일부터 3개월간 실시. (053)951-3340-1 △유치원 시간제교사=부루나 어린이집(원장 선일)은 유아교육, 아동학 전공의 시간제 교사를 모집. 오전 8시~오후 2시까지

나의 수행일기 김기열 (국방참모대 교수) 나는 현대를 살아기려면 크리스찬이 되어야 한다는 확신을 지녔던 막내 고모의 영향으로 초등학교시절 교회의 문을 두드리던 이후 사관학교 3학년때까지 13년 동안 착실히 목회활동을 하던 교인이었다. 그러나 우연한 기회에 육사 호국사에 들린 것이 계기가 되어 불교와 인연을 맺게 되었다. 그 후 오늘날까지 22년 동안 불법에 의지하며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생사가 교차되는 현장에서나 항상 부처님을 향하는 구도자의 모습을 닮아가려 노력했다. 내부적으로는 불교경전공부·참선·론·스님 법문 등을 통해 불교의 대의를 알려고 애썼다. 외부적으로는 법당봉사, 불자모임인 금강경 회장직도 맡아보는데 등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다. 그러나 선군이 부족했던지 아니면 업장이 두터워서인지 마음 한구석에는 늘 허전함이 남아 있었고, 부처님을 느끼지도 못하며 그때그때 방편에 따라 생활해 왔다. 이러한 귀중한 체험으로 오랫동안

"군생활과 수행 둘 아니다" 슬픔 불안 업보는 분별... "모든 것 마음" 목말라 했던 구도에 대한 그 무엇을 얻게 되었다. '기쁨 슬픔 근심 걱정 불안 업보 업장이 한낱 분별일 뿐 본래는 없다'는 말을 성자만이 아니라 우리같은 범부도 체득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뿐만 아니라 부처님이 간곡하게 말씀하신 <금강경> 수지독송의 무량무변 공덕의 실체가 무엇인지 실감하게 되었던 것도 큰 기쁨이다. '복을 구한다거나 도를 구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모든 것은 내 마음속에 이미 구족되어 있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이를 계기로 당시 윤교수님이 지도하던 바른법연구원의 세미나 노트를 도반들만 보기에 너무 아까워 책으로 엮어 되게 하고자 했던 것이 <성자와 범부가 함께 읽는 금강경>이다. 이는 부처님이 기뻐하실 모든 믿고, 어려운 세상살이에 지친 모든 이들에게 위안과 희망을 줄 것을 확신하면서 앞으로 더욱더 수행정진할 것을 다짐한다.

대원불교대학 학생모집 (2년제 야간 전문과정) 불교 대중화를 선도하는 대원불교대학이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25년 역사의 불교계 최초 전문교육기관, 교계 최고의 강사진. 2002년 3월 11일 수요일

'98 삼화불교대학 학생모집 1. 모집학과 및 안내 2. 학교연혁 3. 특전 4. 원서교부및접수기간 5. 원서교부및문의처